

삼위일체 대축일 복음나누기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 3,18ㄷ)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나눕니다)

4. 준비기도<성경을 읽기 전에>

- 다 같이 손을 잡고 성경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내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소리 내어 바칩니다.

5. 독서 (성경읽기 1) - 요한 3,16-18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6-18

16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절, 한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그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며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요한복음 저자의 상징인 독수리는 태양을 직접 쳐다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보면 진리를 꿰뚫어보는 독수리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설명이나 묘사는 망설임 없이 직접적이며(요한 1,1;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대화방법도 표면적인 것에 머무는 법 없이 직설적입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은 바리사이 가운데 한 사람이자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 의원인 니코데모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징들을 보고 하느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3,1-2). 그러나 니코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니코데모에게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외아들을 내주시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 하십니다(16절).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내주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은, 스스로를 내주면

서까지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고, 세상을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율법으로 서로를 구속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17절).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인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15-19에서 모세도 백성들에게 비슷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킨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신명 30,15-16).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의 잘못과 불순종에도 눈멀고 귀먹으신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 봅니다.

(해설을 듣고 자신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 목상나누기

-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닮은 사랑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경험들을 나누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개인의 특별한 지향이나 소망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8. 안견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